

§ 양심에 관하여

- 어원상 고찰

양심이라는 말은 syneidesis라는 희랍어로서 희랍문화에서 기인한 말이다. 희랍어인 시네이데시스는 함께 알다, 더불어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인데 이는 라틴어의 conscientia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접두어 con-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으며 -sientia는 동사 scire에서 파생된 말로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 역시 “함께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 양심의 정의

세계철학대사전에서는 양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양심은 자기 자신의 태도,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윤리적 당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관한 의식, 또는 소절’이다. 즉,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자기가 악을 행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든가, 자기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경고한다든가, 행했음지도 모를 악을 행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든가 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 자신이 행한, 행할 것 같은, 행할 수 있었던 악에 관해 의식하는 내적인 체험을 말한다.

- 양심의 기원

양심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득적인 것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을 결정하는 타고난 직관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직관주의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의 도덕적 특성에 관해 직관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양심을 미래 행위를 유발하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누적된 주관적 추론이라고 보는 견해는 경험주의이다. 경험론자들에 의하면 양심은 스펜서(Spencer)나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²⁾처럼 사회학적 조건과 필요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다른 한편 양심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행동주의 학자들은 양심을 특정 사회적 자극에 대한 일련의 학습된 반응으로 본다. 이 경우 양심은 대개 문화나 교육에 의해 주입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동양의 양심 사상

동양에서 양심의 원천은 중국 상고시대 上帝天 개념에 근거한다. 천은 절대적 존재로 人事를 주재한다. 선악에 따라 상벌을 주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天意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天意에 부응하기 위해 제의를 행하고 궁극적으로는 天人合一을 지향했다. 동양에서 양심은 인간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선한 본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 즉 천부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의 착한 마음이 곧 양심인 것이다. 중국 고대 철학 사상 속에서 양심 문제는 현실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유학 사상과 관련이 깊다. 유학에서 양심 개념은 孟子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 맹자에 따르면 양심은 선천적이고 그 선천성은 천성의 純善에 근거한다고 본다. 天命으로의 천의 순선함은 人性에 내재되며 그것은 天의 절대적 도덕성과 통한다. 천이 천명으로 인간의 마음에 부여한 도덕 의식이 양심이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법칙, 양심을 부여했기 때문에 도덕을 좋아하고 인간이 도덕성을 지닌다고 본다.

양심에 대한 맹자의 논의는 <맹자> 고자장과 진심장 盡心章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맹자에 의하

면 양심은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良志와 良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진심장 상편에서 ‘人之所不學而能者는, 其良能也요, 所不慮而知者는, 其良知也라.(인지소불학이능자는, 기량능야요, 소불려이지자는, 기량지야라).’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이 그의 양능이며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그의 양지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맹자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옳게 여겨질일이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양능이라고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아는 것을 양지라고 규정하였다. 즉 양심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하는 데는 어려운 학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맹자에서 양심은 인간으로서 지니게 되는 인간다움의 표상이다. 告子章, 上편(고자장, 상)에 보면 양심이 있기에 인간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는 인간은 仁義의 양심이 있기때문에 살 수 있는 데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하며 仁義의 도덕의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데에도 피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맹자에 따르면 양심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지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 서양 고대 철학에서의 양심 사상

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명예나 부의 축적에 있지 않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왜 우리는 바르고 선하게 살고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절대적 가치가 존재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확실한지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소크라테스는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그 어떤 이론적 확실성보다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든 모든 확실성은 내면의 깊은 속에서 나온다고 본다. 인간은 자기 속에 잘못을 저지르려할 때 경고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다이몬 daimon(神靈)이라고 말하고 후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이것을 마음의 확실성, 곧 양심으로 표현한다. 파괴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 이것이 곧 양심이다. 소크라테스는 경고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이 내면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행동이 선한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를 구별해 주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내면에 자리한 양심은 우리를 이끌어 준다. 아름답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이기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혼을 보살피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②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양심을 신적인 로고스로 해석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양심을 신이 인간에게 심어 준 이성의 법칙, 곧 로고스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단순한 이성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는 것은 동시에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며 이에 따를 때 참된 구원의 삶에 도달할 수 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인 세네카(L.A.Seneca, 4-65)는 인간 안에 거처하는 거룩한 영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지켜주고 살피 준다”고 말한다.(서간집 41,1) 세네카는 양심을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적인 목소리로 파악했다.

- 서양 중세의 양심

그리스도교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볼 때 양심의 원천은 신학적인 초월자가 끼어드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양심이란 인간이 ‘신과 함께 안다’라고 해석한다. 양심은 신을 향해 있는 것이기에 따라서 양심 안에서 인간은 신을 인식한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양심을 종종 ‘하느님의 목소리’로 이해해 왔다. 초월자를 인정하는 경우 양심은 절대자의 개입에 의해 좌우되며 그것은 절대자와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① 바오로는 그리스도 이전부터 그 시대의 철학과 윤리학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양심, 시네이 데시스라는 말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거기에서 말하는 양심의 정신적 기능의 특징은 어떤 윤리적 결단을 내리기 전이나 후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지만 물론 그 양심의 기초인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바오로는 “우리는 하느님 앞이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2고린 4,2) 또한 로마서 2장 14-15에서 바오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은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며 양심에 의해 그 율법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즉 양심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판단력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들어 있는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를 분리시키지 않으므로 양심의 판단 하나만이 있을 뿐이며 그리고 그 판단은 신앙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교부들은 양심의 판단을 가끔 하느님에 대한 양심의 관계로서 해석했다.

② 교부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느님과 인간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목소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 인간의 신적 중심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하느님과 영혼을 의식하게 된다. 이 사상의 노선을 따르는 보나벤투라와 중세의 위대한 신비가들은 양심의 가장 깊은 바탕을 영혼의 섬광(scintilla animae)에 두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영혼의 정점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그들에 따르면 양심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영혼의 중심 처소이므로 죄에 물들 가능성이 가장 적다.

③ 아퀴나스는 인간의 최고선은 인간 자신의 완전성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들은, 무엇이건 간에,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신학대전, 1, 2, 1, 5)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 인간의 완전성이란 인간이 신과 접촉하고 인간을 위한 신의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으로 현존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신학대전, 1, 2, 3,1)

아퀴나스는 진정한 행복, 즉 지복은 단지 우주의 근거이며 스스로가 최고의 무한한 선인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완전하고 자기 충족적인 행복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직 내세에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고 신을 소유하고 그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식과 사랑에 의해서 이 궁극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성적인 피조물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바로 인간의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인 현세에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인간에게 있어 적절한 삶은 이성적인 삶

이다.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본다. 이성은 우리에게 자연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는 신의 영원한 법칙이 인간의 본성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이 창조한 세계에 위계적인 질서가 있고 각각의 질서는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법을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포된, 공통의 선을 위한 이성의 법칙”(신학대전 1, 2, 1, 5)이라고 정의한다.

영구법(영원법, *lex aeterna*): 이 법은 신이 창조한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불변의 법칙이며 다른 모든 하위 법들의 근원이자 최후의 목적이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이 영구법의 지배 아래 있다. 모든 사물과 그것의 발전 과정에는 가치를 지향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내재 있다. 선을 실현하려는 이 자연적 경향이 영구법에 의해 모든 사물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이 없는 피조물처럼 무의식적이고 내재적인 운동 원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성적 능력으로도 참여한다.(신학대전, 1, 2, 91문제, 2절)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이 우주의 공통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 [또한] 그는 각각의 모든 피조물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행위와 개념들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로서의 신의 지혜는 행위를, 모범을, 관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법칙은 모든 것의 운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것으로서의 신의 지혜의 실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신학대전, 1,2, 91, 3)

자연법; 영구법에 참여하는 이법, 이성을 지닌 인간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이법을 아퀴나스는 자연법(*lex naturalis*)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이 법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연법은 인간에게 규범적 의미를 지닌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신학대전』, I-II, 91, 2에서 ‘이성적인 피조물 측에서 신의 법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지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칙을 우리는 바로 ‘자연법’이라고 부른다.”(같은 곳)

시민법으로 인정법(인간법, *lex humana*) 또는 실정법(*lex positiva*): 모든 인간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제나 이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은 공동생활을 위해 자신들에게 또 다른 법을 부과하는데, 아퀴나스는 이것을 인정법 *lex humana* 또는 실정법 *lex positiva*이라고 부른다. 인정법은 자연법의 일반적인 규정들을 특수한 요청에 따라 보충한다. 그 보충은 일반적인 원리들로부터 ‘추론’하거나 일반적인 원리들을 좀 더 상세히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실정법은 추론이나 확정의 방식으로 자연법의 명령에서 획득될 때에만 실질적으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인간의 양심을 구속한다. 이 인정법은 이러한 자연에 어긋나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간주한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법의 부패’일 뿐이다. 그런 법은 결코 인간의 양심을 구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심 *synderesis*는 자연법을 착오 없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공진성, 364-365쪽)

아퀴나스는 윤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기준인 의도의 선함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선한 대상을 식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점에서 도

덕의 영역에 제일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변적 학문의 영역에서 이성의 제일 원리로 모순율(하나의 동일한 것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이 있는 것처럼, 도덕의 영역에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윤리의 제일원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원리에서 제시된 객관적인 선이 무엇인지를 아퀴나스는 자연법(*lex naturalis*) 사상 안에서 찾는다. 이 기준은 인간의 도덕률이 이성에 의해서 언명되고 명령될지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이라고 불린다.

자연은 이성의 명령이며, 신의 마음으로부터 발산된 것이며 우리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연적 성향의 첫 번째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각 개인은 자신 안에 도덕률의 최고 원리가 되는 ‘영혼의 불꽃’을 지니고 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도덕의 원리가 구체적인 경우들에 적용될 때 양심이 작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가 객관적인 자연법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을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퀴나스는 올바른 양심을 형성할 책임이 이성을 지닌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 근대철학

① 피에르 벨의 양심의 자유: 1562년에 장 드 뤼크가 1월 칙령에 대한 답변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프랑스에서 관용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다. 이 시기에 종교전쟁이 시작되었고 ‘양심의 자유’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기 시작한다. 1685년 10월 퐁텐블루 칙령으로 루이 14세의 불관용 정책이 시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관용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벨의 관용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에서 벨의 고유한 관용 이론이 제시된다.

당시 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23절의 결혼 잔치 우화에 나오는 “강제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라고 번역)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는 구절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자신들 주장의 정당화와 그리고 왕국에서 종교적 통일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벨은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박해자들에 대한 강제 개종의 부당함을 이 구절을 새롭게 주해하는 것으로 반박한다. 는 부제가 이다. 이 저서에서 벨은 믿을 수 있는 것의 토대를 세우고자 하며 “진리라는 이름으로 양심들을 강제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종교적 강제성의 문제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본성과 복음의 올바른 정신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벨이 생각하는 종교의 본성은 신과 관련한 영혼의 모종의 어떤 설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본성에 어긋나는 내부적인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강제성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해 종교적 영감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종교를 공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력에 의해 종교에 영감을 주는 것은 상식, 자연적 빛 그리고 이성의 보편적 원리들,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에 반대된다.”는 것이 벨의 생각이다. 벨에 의하면 “특별한 진리들은 올바른 이성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자연적 빛, 이성의 가장 순수하고 또렷한 관념들에 반대”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벨은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벨에 의하면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 그 자체에 반대되는 것이다. 벨은 신약 성경에서 참함, 부드러움 그리고 인내를 복음서의 본질적이고 또렷한 성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강제로 시킨 일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강제력을 사용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복음서의 정신에 위배되는 매우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I, XVII). 신은 외부의 힘에 의한 종교적 행위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된 종교 행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벨은 양심을 강제하는 것과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을 비교하며 그 부조리함을 부각시킨다. 만일 선교사들이 중국 황제에게 “신 스스로 자신의 외아들에 의해 계시했던 진정한 종교를 발표”하도록 요구한다면, 그래서 왕이 선교사들에게 이 복음에 반항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선교사들이 그들이 저항하지 않을 때까지 박해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중국 황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벨은 중국 황제가 당연히 선교사들을 쫓아버릴 것이고 선교사들이 내세우는 종교를 우습고 악마적인 종교로 여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벨은 만일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중국에 온 목적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위선적이고 권모술수를 쓰는 것이라고 본다.(I, V)

벨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모든 신념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성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관용의 실천으로 말하는 것이다. 관용을 약함의 신호로 보는 전통적이 견해를 반박하는 벨은 관용을 각자가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말한다. 관용의 실천은 한 나라 안에 열 개의 종교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벨은 인간에 대한 진리의 기준을 인간의 양심으로 본다.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태도에서 벨은 양심을 진리의 기준으로 파악하며 올바른 믿음에 잘못을 저지르는 양심 역시 진리 안에 있는 양심과 동일한 권리의 혜택을 입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양심이다. 벨은 양심의 권리를 신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인간의 권리로 본다. “양심은, 각 개인과 관련하여, 신의 목소리이고 법이다.” 따라서 이 양심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의 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으로 본다.

불관용 지지자들은 이교도들을 신성모독자들로 간주하며 그들의 처벌은 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벨은 이것 역시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양심의 빛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야말로 신이 결코 인간에게 변제해 줄 수 없는 율법이다.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한다면,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신을 경멸하거나 증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까닭이다.”(II, VIII) 벨은 이 양심을 오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전통적인, 교리에 충실한 양심의 반대편에 둔다.

따라서 벨은 그릇된 신앙의 신봉자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해를 받는 이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해자는 언제나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벨은 간주한다.(III, X)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에 비례하는 만큼의 짐을 부과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나서 진실을 찾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의 원칙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진실의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II, X)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벨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종교적 자유의 필수조건으로 보고 종교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인간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② 칸트에 의하면 사람들은 도덕적 감정이라든가 이웃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일정한 도덕적 특성들을 본성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것들은 도덕의 객관적 조건들이 아니라 의무개념에 대한 감수성의 주관적 조건들로서, 의무개념을 통하여 촉발되는 타고난 소질들이다. 칸트는 우리가 그러한 소질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의식함으로써 그에 뒤따라 의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양심도 바로 그러한 타고난 소질 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서의 각 인간이 본원적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즉, 인간의 자연적(본성적) 경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칸트는 그의 저서 <도덕 형이상학>에서 양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양심은 ‘법칙의 각 사례마다, 인간에게 무죄판결이나 유죄판결을 내리는 의무를 훈계하는 실천이성’이다. 또는 ‘자신의 생각들이 거기에서 고발되기도 하고 변호되기도 하는 그러한 인간의 내면적 법정에 관한 의식’ 혹은 ‘모든 자유로운 행위들을 넘어서는 내적인 재판관’이라고도 한다. 즉, 칸트에게 있어서 양심은 자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윤리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윤리적 당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관한 의식 또는 마음의 성향을 말한다. 그러면 양심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행위를 결심하기에 앞서 어떤 경고하는 양심을 생각한다. 나아가 행위가 결정되면, 양심들 속에서 고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동시에 변호인도 등장하게 된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고소인이 되어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나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때 나는 나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선고하는 판사가 된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명을 하는 것 역시 내 안에 있는 양심이며 이 경우 양심은 변호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경험에서 볼 때 양심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고소인이자 판사이자 변호사라는 말은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양심을 일정한 판단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판단력은 행위가 일정한 법칙 아래에 있는 행위로서 행위하였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판단한다. 그러한 판단은 행위와 법적 효과를 연결짓는 것 즉 유죄 혹은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즉 그것은 행위 귀책歸責의 주관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의 내적인 귀책은 판단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양심이다. 그리고 그러한 양심의 판단은 이른바 인간의 내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법정이란 법칙을 유효하게 하는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법관의 앞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면적 재판관을 통하여 자신이 관찰되고 위협받기도 한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서 성장하는 이 양심의 힘은 그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합체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늘 그를 따라다닌다. 따라서 그는 욕망을 통해서 또는 정신의 분산을 통해서 무감각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종종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거나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그는 바로 양심의 두려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칸트는 이른바 양심의 결핍이란 양심의 결여나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벽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즉 만일 누군가가 ‘이 사람은 양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그 사람은 양심이라는 말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 현대철학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실존 자각과 양심의 원천을 연결시켜 이해한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양심은 현존재의 ‘염려의 부름(Ruf der Sorge)’이라고 규정된다.

“양심은 스스로를 염려의 부름으로 드러낸다. 부르는 자는 내던져져 있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존재이다. 부름 받은 자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으로 불러 세워진 바로 그 현존재이다. 그리고 현존재는 그들(세인世人) 속에 빠져 있음에서부터 불러 세워진다. 양심의 부름, 다시 말해서 양심 자체는 현존재가 그의 존재의 근본에서 염려라는 사실에 그 존재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실존 철학에 있어서 인간 곧 현존재란 언제나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세계로 ‘내던져진 자’로서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있음은 그냥 그렇게 놓여 있음이 아니라 그 있음 자체가 떠맡아야 할 과제로 부과되어 있는 그러한 있음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가며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모든 것은 자신의 실존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단히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기획하고 미래에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언제나 지금 현재 무엇인 바 그가 아니고 그가 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바 그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현존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이 ‘내던져져 있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자신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한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오인된 자유’라는 편안함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세인 속에 자신을 상실해 버린 채로 살아간다. 이것이 ‘사람들’ 또는 ‘그들(세인)’이 사는 방식이다. 현존재로서 인간은 ‘본래적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도 있고 비본래적 자신으로서 실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 현존재는 자신의 내던져져 있음으로서 도피하면서 비본래적인 사람으로, 즉 사람들 또는 ‘그들’ 속에 빠져 있음으로써 실존한다. 이는 결국 ‘본래적이지 않은’ 실존의 삶을 사는 것이다. 현존재는 자기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책임 있는 존재인데 그 책임을 방기하고 ‘본래적 자신’으로서 실존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가 이미 ‘탓’이 있는 것이다. 불안 속에서 일상적 현존재에게 자신의 ‘본래적 존재 가능성’으로 돌아가라고, 그 자신에게 ‘탓이 있음’을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현존재 자체의 외침인 ‘양심의 부름’이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가 ‘그들’ 속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것, 즉 ‘본래적으로 있지 않음’의 탓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양심 속에서 부르는 자도 현존재이고 ‘부름을 듣는 자’도 현존재이다. ‘부르는 자’는 세계의 무 또는 무의미성 속에 ‘적나라한 있음’ 곧 ‘내던져져 있음’에 대해 불안해하는 현존재이고 ‘부름을 듣는 자’는 일상이라는 ‘오인된 자유’의 편안함 속으로 도피한 현존재이다.

본래적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일깨움의 소리가 크고 명확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양심의 소리는 침묵의 소리이고 나를 부르되 아무런 말없이 부른다. “호소는 어떤 소리로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호소는 도저히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명료하거나 무규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양심은 오로지 부단히 침묵이라는 양태에 있어서 이야기한다.” “호소는 나의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의 위로 엄습해 온다.”

그에게 있어 양심의 호소를 듣는다는 것은 나의 가장 본래적인 존재 가능에 있어서의 자기 이해, 나의 가장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나의 책임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각오를 포함하고 있다. 양심은 현존재인 자기를 世人속으로의 상실로부터 본래적인 자신에게 돌아가라고 불러낸다. 양심의 호소는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의 소리 높은 空論으로부터 본래적인 나 자신으로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 심리학에서의 양심

① 양심은 신적 의지의 표현이나 또는 인간의 진정한 자기 표현이 아니고, 순전히 인간이 사회 환경과 다른 영향에 반응해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주로 특정 심리학파들에 의해 최근까지 전해왔었다. 프로이트와 그 심리학파에 의하면 양심은 인간의 환경의 인위적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초자아와 관계된다. 20세기 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초자아를 주장하면서 양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성격의 세 구조로서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라는 것이 있다. 이드(Id)란 성격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성격의 가장 원시적인 체계이다. 이드는 대개 생명 에너지라고 불리는 힘에 의해 움직여진다. 우리의 동물적 욕구의 원시적 희망, 충동이 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인간 정신의 원시적인 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드는 공격적이고 동물적이며 조직되지 않은 것으로서 규칙도 따르지 않는 개인에 내재하는 정신적 원동체이며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원초적인 차원이다. 또한 이드는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쾌락의 원리를 따르므로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을 싫어하고 무시한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자기애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며 언제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자아란 외부적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외부 세계와 이드 사이를 조정한다. 자아는 이드의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여 현실 환경에 적응하도록 행동한다. 자아는 이드의 쾌락적 원리와는 달리 현실의 원리를 따르며 현실원리에 따라 외부세계를 판단한다. 현실 원리의 목적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적당한 대상이나 환경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능적 만족을 지연시켜 개체를 안전하게 보전시키는 데 있다.

한편 자아에는 마치 재판관과 같은 기능을 행사하는 초자아라는 영역이 있다. 인간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질서체계인 가치 도덕, 윤리 체계를 습득해야 한다. 이드의 쾌락추구적인 충동은 현실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드는 즉각적인 생물학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반해 초자아는 이런 이드의 욕구를 억압하고 제재한다. 이드의 쾌락 추구적 충동이 옳지 않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초자아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자아는 아동이 부모의 인정과 처벌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결합시킴에 따라 형성된다. 그 결과 내면화된 일련의 금지·비난·억제는 양심으로 알려진 초자아의 일부분이 된다. 즉, 초자아는 부모와 교사에 의한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양심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이고 양심을 형성하게 된다. 초자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이상적인 면에 대해 말해 주는 것으로 어버이나 교사권위자 또는 재판관처럼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구조 중 마지막으로 발달되는 체계로써 부모의 양육태도, 즉 부모가 주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한다.

이는 양심이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의 영향력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은 야만적인 이드와 문명화된 자아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 이드와 자아가 균형을 이룰 경우에는 초자아라는 재판관이 특별히 잔혹해질 이유가 없으며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공포증, 강박관념, 질병, 사고 등과 같은 벌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발산할 수 없는 이드의 야만적인 욕망이나 충동이 지나치게 약한 자아 때문에 승화될 수 없을 때에도 질병이 발생하며 때로는 초자아나 양심의 요구가 너무 강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자학하는 경우도 병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프로름은 프로이트의 초자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취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양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실현에 있다. 이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획득하거나 잃은 데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여기에 양심이 등장한다. 프로름에 따르면 자기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일상적 생활을 산다면 이는 양심의 비난을 받게 된다. 자기 발전과 성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공허해진 자신의 일상적 삶에 대한 양심의 비난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다.

그런데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프로름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결점(socially patterned defect)’이라는 현상과 연결시켜 고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결점이란 인간에 있어서 어떠한 정신적 결함이 심지어는 그것이 정신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결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은 그 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단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안도감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자기 죄책감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산성을 개발시키는 것만이 자기를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도피하여 타인의 도움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에 정신적으로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니며 자기를 진정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일종의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정신적 결점과 죄의식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신적 결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름은 단지 그것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정신적 결점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대해 우리의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요구한다. 누구든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자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수천 리 바닷길을 생명으로 죽음으로 강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가 오직 자신의 후각을 따라 고통스런 여정을 헤엄쳐 가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삶의 완성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획득하거나 잃은 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양심의 소리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는 파멸할 것이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으며 그 자신 만이 도울 수 있는 것이다.”

- 양심과 도덕

양심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든,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든 우리는 그것의 실재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인류의 어떠한 문화도 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문화는 양심의 존재를 인정했다. 양심의 실재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오래 전에 나온다. 원시 민족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마음”과 “뱃속”은 양심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 보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증인이므로” 사람은 그 증인의 말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며 “그 증인이 가리키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힌두교에서는 양심을 “우리 안에 거처하시는 불가시적인 신”으로 보고 있다. 구약성서에는 양심을 “마음”-가끔 “뱃속”이라고 번역됨-과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심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도덕적 의무를 알려주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재촉하는 윤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양심은 구체적 행동의 도덕성에 대한 최종적인 실천적 판단으로서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피하라고 명령한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인간은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도덕 의식을 소유하고있다.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양심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윤리의 객관적 규범인 도덕률들은 여행자들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는 도로 표지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여행자들을 돕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여행자들은 그 표지판을 식별할 줄 알고, 올바른 방향을 택하고, 표지가 없는 곳에는 보조 표지를 해 놓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 감각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

자기가 한 악한 행위에서 양심의 소리는 가장 날카롭게 의식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려 해도 우리의 지적인 영혼은 도덕성과 영혼의 자유가 없이는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한다. 양심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자기의 내면을 잃으며 표층뿐인 빈 껍질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계발하고 훈련시키고자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